2장 “예수 그리스도” 요약

송은우

03/09/2013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통해 계시된 하니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구약에서 계시된 하나님과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은 어느 정도 간격이 있는것이 사실이다. 구약의 하나님은 그의 초월성 과 율법을 먼저 드러내셨다.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동시에 두려운 존재였기때문에 함부로 할수 없으며 가까이 접근할수 없는 존재였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은, 첫째, 인간과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시다. 인간과 함께 거하시면서 인간의 희로애락을 함깨 경험하시는 분이셨다. 둘째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 죄와 고통과 죽음 아래 사는 인간을 용서오 평강과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 속으로 불러주시는 분이시다. 세번째로 예수님을 통해 계시되신 하나님은 부단히 인간을 가르치고 깨우치시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을 통해, 교회를 통해, 성경 말씀을 통해 지금도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우치신다. 또한, 네번째로, 인간의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운 경배를 열납하셨듯이 부족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경배하는것은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다섯때로 장래의 영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장차 하늘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광을 함께 볼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과 영원한 형벌에서 건지시고, 마땅히 우리가 짊어져야 할 죄와 저주와 심판을 스스로 짊어지신 하나님 이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에 인간의 죄를 마땅히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나 인간의 허물과 죄를 예수님을 통해 스스로 짊어지시고 인간을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희생과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형상은 무엇인가?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그는 성부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을 비우며 섬김의 삶을 사신 분이다. 인간은 항상 자신의 만족을 구하며 살아가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은 성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다. 두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써 보여 주신 형상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해 사셨다는 것이다.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스스로 살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해서 사셨다. 그럼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스스로 보여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인것을 믿는다는 것이다. 구약시대에 특별한 소임을 위해 택함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던 직분이 세 가지 가 있는데 곧 제사장, 왕, 그리고 선지자 이다.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던 제사장, 왕, 선지자는 장차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을 대표한다 하여 이를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불른다. 먼저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시켜 주는 다리 역활을 한다.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달하는 일과 함께 백성의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이다. 제사장이 하는 일 중 가장 중요한 일은 백성의 죄를 사함 받기 위해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의로운 제물로 드리시고, 자신이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의 기도를 드리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계신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가 왕이시라는 사실이시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처럼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래서 그 법 아래 살고 있으며 우리를 지으시고 다시리시는 왕이 계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시다. 그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평강의 왕이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이유는 그의 통치 속에서 비로서 우리의 삶이 평강을 찾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창조의 질서이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부터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왕으로써, 하나님으로써 모시고 살도록 창조되었다. 세상의 왕은 권력과 심판으로 다스리지만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로 다시르신다. 그는 강요하시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인격적으로 그를 알고 모시기를 원하신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 풍성한 생명을 위해서 왕으로 오셨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를 듣고 따르는 자에게 영생을 약속 하셨다. 예수님은 오늘도 믿는 자들 속에 왕으로 살아 계시며, 그들을 믿음과 성경과 겸손과 섬김의 삶으로 인도하신다. 그가 친히 목자가 되셔서 자기 양들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고 오늘 믿는 자들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살아계신 왕이시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말할 때 마지막으로 언급되는 것이 선지자이신 예수이다. 선지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 사는 백성들이 장차 겪어야 할 심판을 미리 경고하고 하나님께 돌아올것을 촉구 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소망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이다. 선지자들은 자기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인해 겪어야 했던 불행과 재난을 함께 겪으며 하나님의 메세지를 전해야 했다. 이런 선지자들의 삶과 메세지는 장차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멀리서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뿐 아니라 본인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셨다. 그의 삶 자체가 인류의 구원을 위해 들려주는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 또한 구약의 선지자처럼 그 시대의 사람들의 오해 속에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셨다. 영원한 구원과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조차 자기 백성들에게 버림을 받은 사실이 세상 과 백성의 어두움을 나타내고 있다. 인간이 예수님조차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첫째 사람은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고, 둘째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며, 마지막으로 셋째는 세상이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기때문이다.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완성으로 오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셨을 뿐 아니라, 본인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셨다. 우리는 겸손과 기도로 그앞에 나아가 그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